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오리구이점 全聚德 대만진출



베이징(北京) 오리구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취안쥐더(全聚德) 그룹이 올해 대만에 분점을 개설한다. 대만 기업인 허벤찬인의 주종이(朱忠義) 총경리는 16일 취안쥐더가 자사와 합작, 남부 가오슝(高雄) 상자오평(香蕉棚) 부두에 올해 하반기 대만 1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취안쥐더는 베이징 오리의 원조로 꼽히는 대만 남부 핑둥(屏東)현 오리를 사용할 예정이다. 취안쥐더 본사는 요리사를 대만에 파견하는 한편 대만 요리사 4명도 본사에서 연수시킬 계획이다.

1864년 베이징에서 창업된 취안쥐더는 국내외에 모두 60개 점포가 있으나 대만 진출은 처음이다. 가오슝시는 취안쥐더 진출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기도 하다. 취안쥐더는 2002년 대만에 상표 등록을 했으나 오리 공급원, 요리사, 지금 진출 문제 등으로 그간 개설이 늦춰졌다.

중국 음식업계의 대만 진출은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두 나라 정부가 취안쥐더의 1호점 개설 서류를 심사 중이다.

출처 : The Land

호주

오리산업 확장에 난항



호주 오리 생산업자들은 노천굴 탄광과 같이 이용 불가능한 땅에서 오리가 사육되어야 한다는 등의 사람들의 무지와 그릇된 인식으로 산업 성장에 저해를 받고 있다고 The Land(농축산 전문지)에 전해왔다. 호주 남동부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오리고기 수요 급증으로 주당 10,000수 정도의 물량 부족 사태를 보였으며, 오리고기 공급업자들은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현재 오리고기는 닭고기 등 타 육류와 가격에도 큰 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구 증가로 사상 최

대의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호주는 연간 도축물량 7백만 수수를 기록하며, 매년 12%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헨터 밸리의 Howes 밸리에 계획 중인 사육 농장들은 지역 정부의 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Pepe's Ducks의 본부장이자 호주 오리고기 협회 회장 John Houston은 "축사 신설이 없다면 산업 발전이나 신규인력 채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